

# 계란유통의 난좌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취재 : 김용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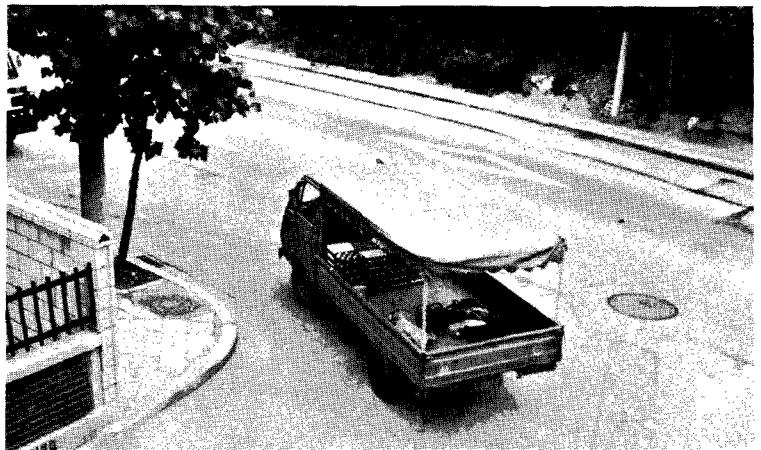
냉장고에 들어가는 식품중 똥  
물은 것은 계란뿐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품 중에서 가장 불결하고 부주의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양계인들이 생산하는 「계란」이라고 대답해도 과언은 아닌듯 싶다.

일부 몇몇 채란농장에서 출하되는 계란은 티하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선별되어 출하되지만, 나머지는 거의가 위생에 대한 개념없이 농장에서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아마도 여름철에 먹는 아이스크림이나 다른 음식이 계란처럼 취급된다면 일반 소비자를 포함한 양계인들은 자기의 건강과 연관을 지어 위생단속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취급하는 주인과 먹살을 잡고 싸움을 벌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식품의 위생 개념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비중 높게 취급되고 있는데, 아직도 채란업자들은 계란이 우리 국민의 절대



△운반차는 누가보아도 눈을 찌푸릴 정도다

식품임을 인정하면서도 피묻고, 깨지고, 썩고, 난좌가 구더기가 나올 정도의 것으로 유통을 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양계인은 상술에서 뒤떨어져 있다

하찮게 여기는 이쑤시개도 1회용으로 하여,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 날개로 포장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는 무엇을 믿고 구태의연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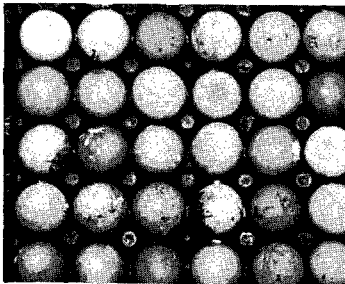
기자가 몇몇 농장과 계란유통 상점을 취재차 들러 현장을 보니 채란산업의 구조적인 모순은 난좌로 인한 오랜 때문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중국집에 짜장면 한그릇을 주문해도 램프로 포장을 하여 가지고 온다. 그러나 계란은 포장을 고사하고

겨우 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시켜 온갖 더러운 짐을 실었던 트럭에 그저 쓰레기 싣고 다니듯 하는게 현실이다.

서울시의 1일 계란소비량은 대략 600만개로 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천만개가 생산되어 유통된다고 할 때 소비자들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계란을 보고 소비가 30%가 줄었다고 가정하면, 서울서만도 어마어마한 계란이 체화될 수 있다.

아무리 소비홍보사업을 활성화시켜도 소비자들이 단편적으로 오염된 난좌와 오란을 눈으로 직접 본다면 구매욕이 일시에 떨어질 수 있다.



△식품인지 오물인지 구별이 어렵다

### 난좌문제가 가장 심각해

그렇다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난좌인데 왜 난좌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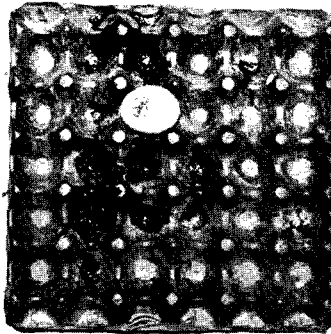
유통되고 있는 난좌는 규격이 일정하지도 않고 중량 또한 난좌마다 제각기 다르다.

난좌로서 계기능을 그래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량이(플라스틱) 100~110g이 되어야 기본틀이 변형되지 않고 난좌에 계란을 담아 쌓을 경우 난좌코가 정확히 맞아 파란을 막을 수 있는데 현재 사용되는

난좌는 75~78g 짜리가 대부분이어서 조잡하기가 이를테 없다.

특히 현재 사용되는 난좌의 문제점은 경란부터 대란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특란과 왕란운반시 규격이 맞지 않는 점이다.

왕란의 전장 길이는 평균 6.5cm인데 일반난좌의 두개겹쳐진 높이는 8.5cm 안팎이다. 표준품의 높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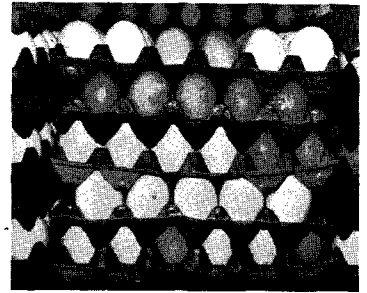
△좌측의 검게 보이는 부분이 난좌가 조잡하여 운반시 파란이 생겨 난백이 흘러내린 자국이다

9.5cm가 되고 있다. 결국 1cm정도 난좌가 계란을 받침대로 하여 뜨게 된다.

### 난좌가 보호대가 아니라 계란이 받침대 역할해

이와 같은 상태에서 겹겹이 쌓아 차량으로 운반할 때 난좌가 보호대 역할을 하지 못하여 충격으로 파란이 생기게 된다. 특란의 전장도 6cm가 된다. 왕란과 마찬가지로 조잡한 난좌일수록 난좌코가 공중에 뜨게 된다.

그리고 간격이 일정치 않아 한면은 30cm 다른 면은 28cm밖에 되지 않아 난좌구멍간격이 규격품의 경우 코에서 코의 길이가 5cm로 일정한데, 요즘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난좌는 5cm, 4.5cm로 되어 있어 특란



△일반 난좌에 왕란을 담았을 때 규격이 맞지 않아 지지대인 난좌코가 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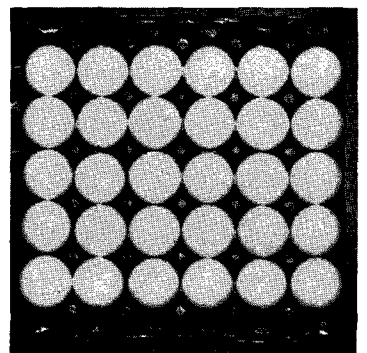
을 30개 담으면 계란끼리 맞닿을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코간격이 5cm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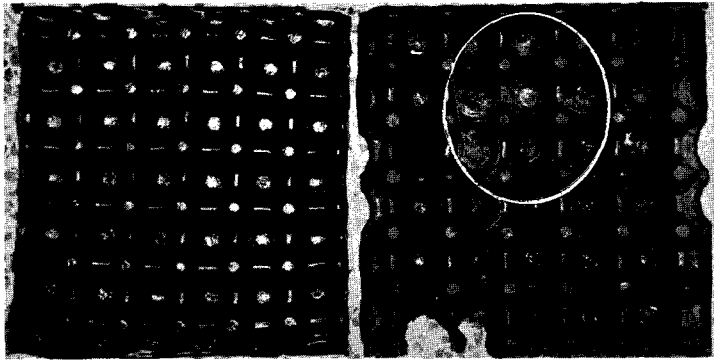
### 문제점 분석

계란유통에 있어 유통구조가 잘 못되어 상인에게 수탈당하는 돈이 엄청나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난좌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식을 보면 상인들이 생산자 위에서 왜 군림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간다.

우리나라 기술수준으로 표준규격의 난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에 플라스틱 난좌공장은 5군데, 종이 난좌공장이 1개 업체가 있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난좌에 담겨진 특란이 난좌간격이 좁아 맞닿아 있다



△새것(우)과 여러번 사용한 난좌(좌) 비교(불결하기가 이를 데 없다)

생산자들이 위생에 대한 책임감은 커녕 요즈음 같이 계란값이 비쌀 때(특란 59원) 특란1판에서 파란 1개 생기면 마진(1개에 2원)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계산도 못하는 실정 이어서 난좌개선은 근본적인 개념 정립이 성립되지 않는한 시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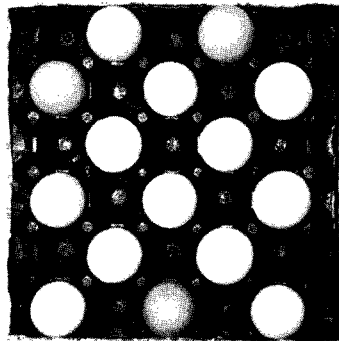
### 조잡품 나오게끔 생산자가 오히려 더 부채질하고 있어

난좌공장에서 조잡품을 만들어 값싸게 공급하려 해도 생산자들이 위생이나 파란 방지를 위해 외면해야 하는데 값싼 난좌를 스스로 더 원하고 있는 실정 이어서 난좌생산 업체는 부득이 조잡품 일변도로 가게 마련이다. 100~110g 정도의 난좌값이 90원선인데 75~78g 짜리는 50원선이라서 생각할 여지없이 50원 짜리를 쓰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것도 부족하여 아예 난좌를 상인에게 구입해 오라고 주문을 하니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1회용으로 나온 것도 말만 1회용 이지 난좌의 형체가 닳아질 때까지 연속사용을 하는 실정이다. 왕란난좌가 국내에 없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20개들이 왕란난좌의 경

우 일반난좌보다 값에서 100원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육종기술의 발달과 사양관리의 향상으로 계란은 커지고 있는데 난좌공장은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생산자들의 기호를 맞춰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난좌에 담겨진 왕란

### 생산자들의 양심적인 출하품도가 요망돼

여기에 유통업자들의 지적을 보면 오란이나 케이지에서 깨진 계란을 슬쩍 끼워 넣고 있어 부패는 물론 더러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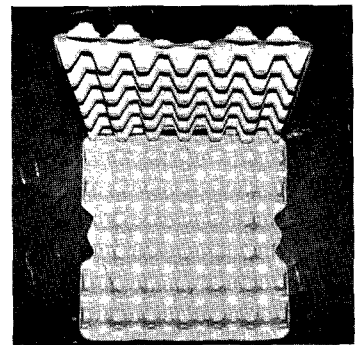
난좌는 앞판과 뒤판의 규격이 꼭

맞게 제작되어 겹겹이 쌓았을 때 맨 아래층의 계란이 살랑살랑 움직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난좌는 공기 유통이 잘 안되어 부패를 촉진시키게 된다.

일부 생산자들의 노력으로도 어려운 것이 1회용 유통이 정착되지 못해 애써 규격품을 구입하여 사용 하여도 출하후 다시 회수되는 난좌가 조잡하므로 개선시행이 어려워 진다.

값싼 난좌만을 구입하려는 생산자들이 위생개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생산한 물건을 출하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근절되어야 한다. 국내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서서 더러운 계란먹지 말자고 나오기 전에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노점에서 파는 과일도 한개 한개



△규격제품(열이 정확하다)

정성들여 포장하는 시대임을 생각하고 계란 한알마다 포장은 어렵더라도 운반을 위해 사용하는 난좌 만이라도 1회용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플라스틱난좌라도 세척을 하는 정성을 쏟아야 하리라고 본다. **양지**